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은혜로운 성탄절과 연말 행사 되도록!

오늘 서리집사, 교구일꾼 임명을 시작으로 11일에 전도회 총회, 18일에 교사·찬양대원 임명 '94 성탄절 축하 행사 - 24일 밤 서초구민회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연말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출발한 1994년도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12월 한 달 동안은 올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1995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각 부서의 일꾼들을 임명하는 일이 계속된다.

■ 오늘 서리집사, 교구 일꾼 임명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 서리집사를 임명한다. 당회의 서리집사 추천서에 동의하고 지난 11월에 면접과 교육을 마친 신입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오늘 임직을 받는 1995년도 서리집사는 남 294명, 여 470 명으로 총 764명이다.

또한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각 12개 교구의 교구장, 97명의 지역장과 1명의 부지역장, 217명의 남·여 다락방장, 84명의 권찰 등 각 교구의 일꾼 임명식도 갖는다.

오늘의 교구 일꾼 임명에 이어 오는 18일(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임명식이 있고, 21일에는 수요일예배를 담당하는 호산나 찬양대원과 시온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 교구일꾼 임명식 / 4일(주일) I, II, III 예배 시
- 교회학교교사 임명식 / 18일(주일) I, II, III 예배 시
- 찬양대원 임명식 / 18일(주일) I, II, 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21일(수) I, II부 예배 시

■ 오늘 교구총회로부터 계속될 각 부서의 총회

오늘 임명된 교구 일꾼들은 오늘 III부 예배 후 1층예배실에서 총회를 가진다. 전체 교구 총회를 마친 후에는 각 교구별로 속회를 열어 담당 교역자와 인사를 나누고 내년도 교구 행정과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토의하게 된다.

교구총회를 필두로 각 부서의 총회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 교구 총회 / 4일(주일) III부 예배 후 2층 예배실
- 권사회 총회 / 7일(수) I부 예배 후 2층 예배실
- 안수집사회 총회 / 7일(수) II부 예배 후 2층 예배실

- 실업인 선교회 총회 / 10일(토) 오후 4시 2층 예배실
-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전체 총회 / 11일(주일)
- (각 선교회 혹은 전도회 별 총회는 5일(월) ~ 10일(토), 각 지회별로)
- 찬양대 총회 / 11일(주일)이나 14일(수)에 각 찬양대별로

★ 성탄절 행사 - 「성탄 축하의 밤」

올해의 「성탄축하의 밤」행사는 24일(토) 밤 7시에 서초구민회관에서 가진다.

이를 위해 「성탄 축하의 밤」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 동원, 시설 등 업무를 세분하고 주님 오심을 의미있게 맞이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교회학교 전 부서가 함께 꾸미는 뮤지컬, 잘 알려진 캐롤을 모아 가브리엘 찬양대의 주관 하에 온 회중이 다같이 부르는 <성탄의 송가>등,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의미깊고 아름다운 성탄절로 각인될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우리 교회 전 가족은 물론 이웃들도 초청하여 함께 주님오심을 기뻐하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날로 삼도록 하자.

금년도 성탄절은 주일이므로 주일 I, II, III부 예배를 성탄감사예배로 드리게 된다.

■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연말을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구제의 영역을 넓히고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지에 대한 돌아보는 일도 잊을 수 없는 계절이다. 교회 안에 생활이 어려운 교우들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대외적인 구제의 손길을 펴는 데에 소홀함이나 편협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때이다.

각 부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적으로도 '9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기 위한 '95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일로 분주해지는 12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격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안수집사회 창립 총회 7일(수)에 초등부실에서

지난 주일 제 3대 안수집사 임직식을 가진 것으로 우리 교회에는 총 22명의 안수집사가 봉직하게 되었다.

당회는 안수집사들의 효과적인 봉사와 신앙 성숙을 위해 안수집사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창립 준비위원으로 이제원 집사, 성준경 집사, 서문석 집사, 임상현 집사를 위촉하였다.

안수집사 창립 총회는 오는 7일(수)에 II부 예배후 2층예배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당회는 지난 11월 30일의 임시 당회에서 1995년도 권사회장에 양숙란 권사를, 부회장에 박순옥 권사와 김종자 권사를 임명하였다.

권사회는 12월 7일(수)에 총회를 통해 1995년도에 봉사할 임원진을 새로이 구성하게 된다.

선교사에게 성탄 선물을!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성탄 선물, 혹은 카드를 보내실 분들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여 선교위원회를 지도하시는 권상석 목사님이나 사무국에 가져오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창세기 강해



사라의 웃음

(18장 9절 ~ 15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를 엿듣던 사라는 그만 속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비웃음을 지적하시자 사라는 자신의 웃음을 부정하며 '웃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궁지에 몰리면 당황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후자의 경우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13절)

사라는 여인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도무지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으로만 보여 집니다. 사라는 여기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1 가장 큰 죄 - 불신앙

사라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이성의 한계 내에서 믿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 결과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요일 5:10).

사라가 비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더니 급기야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사라의 모습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교회 뜰만 밟는다면 이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신앙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죄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나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키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10절). 이 약속은 1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faithful)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라에게 은총이 덧입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사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애 3:22).

인간은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구원도, 생명도, 미래도 없 습니다.

3.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창 21:6).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팔일만에 너무 좋아서 부르는 노래 소리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웃는 자'입니다. 불신앙으로 비웃음을 웃던 사라가 이제는 기쁨과 만족의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웃음을 웃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유한한 자신을 바라보면 근심과 고통과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위ეთ 것을 찾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웃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책망을 받던 사라가 칭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

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벤전 3:6). 사라는 믿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희락을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칭찬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라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바뀌었고 남편을 높이고 순복한 사라에게 임한 복은 후손에까지 계승됩니다. 죄는 죄를 부르는 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순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웃음은 다른 웃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웃는 웃음은 곧 허무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슬픈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합시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웃음으로써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칭찬을 모두 영광의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맛 잃은 소금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조미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방부제, 해독제, 정결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표시 또는 자기 희생의 상징으로도 이용되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셨다.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이다. 부패한 양심과 사회 속에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성의 소리가 높게 들려진다. 노사가 사랑으로 만나고 스승과 제자가 존경과 신뢰로 만나며 소득의 정당한 분배와 퇴폐한 도덕성에 오늘의 교회는 진정 방부제와 정결제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는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셨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참맛을 내고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천만 한국교회 성도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94추수감사절, 교회설립 3주년

지난 주일은 금년도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3주년을 겸하여 맞은 뜻깊은 날이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니엘 처럼 항상 감사하는 천국시민의 삶을 다짐하며 감사예배로 드린 주일 I, II, III 예배 시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도 거행했다.

안수집사·권사 임직식

찬양예배 시에는 집사 안수식과 권사 취임식을 가졌다. 새로 임직을 받은 21명의 집사와 33명의 권사는 교회를 위해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약했으며 성도들은 더욱 존경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함께 기뻐한 시간이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

새 일꾼들

지난 주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하기로 자원하였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차량관리부원들과 제일 첫 대면을 하게 되니 주일에 좀 더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기도 하고, 가장 굵은 일에 묵묵히 수고하시는 기존의 차량관리부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교회의 청소나 교회학교 봉사, 심방 등의 일에 솔선하여 본을 보일 것과 기도, 말씀, 전도를 위한 실질적인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회의 대소사에 대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적으로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의 당면 문제나 개선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기로 했다.

지난 주일 새로이 임직을 받은 일꾼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 김일용 윤찬오 왕경래 권영복 황정욱 임훈규 성준경 하영수
- 박동춘 노송성 박정선 홍성주 김영준 김상철 서문석 이복규
- 허희철 이관규 박두호 조정식 임상현

권사:

- 김희순 김정현 이옥순 김남순 김인식 박청강 최순애 조옥순
- 김진영 정복숙 정복순 차복녀 송갑순 심재을 박금옥 최 완
- 김종리 윤영자 이점숙 최영순 김인순 김경희 고후덕 전정순
- 윤문자 우선자 이부자 홍재식 박경희 최인영 이경희 김윤자
- 김순자

모·집·합·니·다.

**운전기사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당회는 지금 사랑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고가 노후되었으므로 현 시가에 매각 처분하고 25인승 버스를 새로 구입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듣고 독지가 한 분이 버스 구입에 필요한 총 1,900만원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하며 1,000만원을 현금하였다.

현재 봉고는 주일에 봉사자의 헌신으로 운행하여 왔으나 새로 구입할 버스는 교회 행사 등에 다용도로 사용하며 상용하기로 함에 따라 버스 구입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한 성도 중 운전기사로 일하실 분을 찾고 있다. (문의 / 사무국 ☎ 517-7651 ~ 5)

**장애인 중
컴퓨터 사용 직원**

몸에 장애가 있지만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분 중에서 사무국 직원으로 일할 분을 모집한다.

교회 자료의 입력과 출판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하실 분은 이력서와 함께 소정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사무국 ☎ 517-76561 ~ 5)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1995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과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한다.

지원서류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제출 및 문의는 각 찬양대장, 교회학교 부장에게 하면된다.

**함께 나눌
<순례자> 원고**

<순례자>는 친교(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선교, 공동체 문화형성에 목표를 두고 매주 발행하는 우리 교회 신문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신앙인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느끼고 겪는 이야기들을 소박하게 엮어서 제출하실 곳은 출판국 지도인 장유희 목사님(교역자실, ☎ 517-7651 ~ 5)이나 순례자 편집실(팩스 / 516-9641).

출판국 위원 확정

당회는 1995년도 출판국 위원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하였다.

- 지도 / 장 유희 목사
- 출판국장 / 이 영 기 장로
- <필그림출판사> 출판위원 / 장선욱, 한정아, 허 숙, 박은경, 송미정
- <순례자> 편집위원 / 오정수, 김세재, 최형열, 정동호, 이종혁, 허 숙, 박은경

출판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림(고후 4:5)에 목표를 두고 고그간 필그림출판사를 통한 단행본의 발간, <순례자>와 주보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교회 내의 유인물·홍보물의 제작 등을 담당해 왔다.

새로이 위원을 선정하고 출발하면서 1995년도에는 문서 뿐 아니라 비디오 등 시각문화 전반을 통한 복음전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교회 내 출판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도 전력하기로 하였다.

▶ 광야의 소리

소도마이트(Sodomite)

12월 1일은 <에이즈 예방의 날>로 공포하고 올해도 전세계가 에이즈 감염의 예방을 위한 홍보와 치료의 대책마련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우리 말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동성연애자에 의해 발병되고 전염되는 것으로, 최첨단의 현대의학에 의해서도 병인의 의학적 규명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병은 누가 보아도 순리(純理)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逆理)로 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부끄러운 욕실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롬 1:24-27)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있었다. 그래서 성적 문란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소돔 사람을 지칭하는 영어 '소도마이트(Sodomite)'는 남색하는 자, 성적 극악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도 감염자의 상당수가 주부, 학생, 회사원 등으로 이 병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 <에이즈 예방의 날>을 기해 모인 각국 대표들은 '이제 위선적인 정책은 그치고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자'고들 언성을 높이며 백신을 만들고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늘이자 하는 등의 갖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지만 그 정도의 정책적 노력으로는 근본적 치유를 기대할 수 없다.

누가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무정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대, '회개하라'는 말을 농담으로 아는 오늘의 소돔인(소도마이트)을 향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역리로 쓰던 것을 그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함을 외쳐야 한다.

■ 교우동정 ■

· 광복동 집사 권윤경 집사(4교구, 방배 다락방)는 「세마환경기술」을 창업하면서 벽체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세마환경기술」 ☎ 0344) 63-10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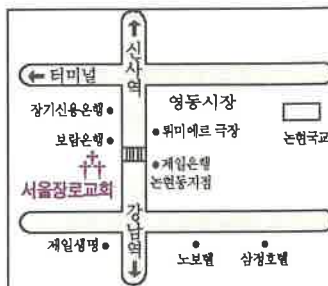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94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 교구 일꾼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3. 각 부서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도록
4. 주님 나심을 의미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